

그 안에 모든 만물을 바로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서 알게 하시고 이제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심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피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이제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늘 저희와 함께하시며 늘 인도하시며 늘 위로하시고 늘 살피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가 천성에 가는 그 날까지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도록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도 함께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 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섬기며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주님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 늘 함께 하시며 이 무리를 이끌어가심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를 충성되이 여겨 교사의 직분을 허락하셔서 아직 몸도 그 마음도 어린 영혼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부탁하시고 그 가슴 속에 말씀을 심어 주고 그 말씀에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물 주게 하신 주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교사의 직분을 이행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저희들 생활도 그리고 그 입술에 주님의 말씀도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Vi un cielo nuevo y una tierra nueva; porque el primer cielo y la primera tierra pasaron, y el mar ya no existía más.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Y yo Juan vi la santa ciudad, la nueva Jerusalén, descender del cielo, de Dios, dispuesta como una esposa ataviada para su marido.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Y oí una gran voz del cielo que decía: He aquí el tabernáculo de Dios con los hombres, y él morará con ellos; y ellos serán su pueblo, y Dios mismo estará con ellos como su Dios.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Enjugará Dios toda lágrima de los ojos de ellos; y ya no habrá muerte, ni habrá más llanto, ni clamor, ni dolor; porque las primeras cosas pasaron.

그 동안 어린 학생들 어린 아이들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어린 아이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돌봐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그 한 가지 일이라도 충성되이 잘 하는 것이 바로 각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해야 될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 지체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듯이 우리 초등부 교사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그런 귀중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존귀한 그런 교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공과가 특별히 새 하늘과 새 땅.

결국은 저희들도 그렇고 우리 어린이들도 결국은 이 잠깐 있는 이 나그네 삶을 떠나서 결국은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그 곳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살도록 우리 아이들한테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 성장을 다하지 못하고 그리고 천국에 간다할지라도

또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예수님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로 이렇게 키우고 성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그냥 이 세상 어린이들처럼 그렇게 생각없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길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드디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그리고 양을 치고 그리고 양을 먹이는 그런 그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대로 우리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해야 할 일을 소명을 주고 사명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소망은 결국 무엇일까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주님을 만날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 그 자체가 바로 천국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예있다 제있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마음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는 우리가 물질로도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거
기에서 진짜 우리가 지금 집에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처소

거기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특히 에덴동산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제 그 자손들이 있었지만은 그
자손들이 죄에 완전히 껴 찻을 때에 하나님은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셨다

그래서 그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가지고 예전 에덴동산이라든지 노아 그 이전의 시대의 땅은 그 때 이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육지가 다시 올라오고 하는 지금 5대양 6대주가 형성이 됐는데 그런즉 새로운 세상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새 세상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새 세상도 실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실은 이것도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요한 이사야서 65장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새 하늘과 새 땅 요한 이사야서 65장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백세에 못되어 죽는 아이는 죽는 사람은 아이겠고 저주를 받은 것이다.

실은 칠년환란을 거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에덴동산같이 다시 복원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그것이 한 45일 정도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으로 아주 새로운 세상을 다시 창조하는데 그것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사야서 65장에는 나옵니다.

그 때는 지금과 같은 어떤 생태계가 아닙니다.

그 때는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식물들 그러니깐 동물들은 식물들만 먹고 살고 사람도 이제 육식을 안 합니다.

사람들도 완전히 채식 내지는 과일만 먹죠.

그리고 사자의 송곳니 같은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

전부다 다 이제 풀을 먹는 것 같이 사자도 이리도 어떤 육신동물들도 전부다 다 초식동물로 바뀌고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독이 사라집니다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상하지 않고

하여튼 뭐 이리나 사자가 아이들에게 이끌리어 다니고 그런 에덴동산과 같은 그런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것도 실은 아직은 이 지구가 있는대로 그냥 지구를 약간 개조한 것이지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지구는 없어집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이 왜 이 바다를 만드셨느냐?

이 지구는 자꾸 낡아지기 때문에 정화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 바다를 만드셨는데

이 천국은 낡아지는 것도 없고 더러워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깐 이 천국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필요없는 세계입니다

다시는 거기는 속된 것이나 또는 더러운 것이나 또는 불의한 것이나 이런 악한 것이거나 또는 어두움이거나 그런 것들은 다시 없는 세계.

그런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머리 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세계.

아주 익스트림 유토피아 아주 최고의 유토피아 세상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이상향의 세계

거기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예전에 시골에 살던 분이 서울에 한 번 왔더니 아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 예전에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 갔다 온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또는 뭐 일본에만 갔다와도요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왜냐면은 보지못한 세계를 그들이 보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뭐 홍콩이라든지 상하이라든지 또는 맨하탄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뭐 서울이라든지 뭐 그 보면은요

낮이든 밤이든 보면 휘황찬란하고 시골에서 진짜 그렇게 평생을 살다 와본 사람은 어~ 하고 입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요 지금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아무리 뭐한 것도 천국에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 다녀온 사도 바울은 내가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실은 원하는 것은 이 몸을 떠나 내가 저 천국에서 주와 함께 거하는 이것이다.

그 저 천국

우리 아이들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죠

저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은 그냥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바라보면 이 영성이 어두워지고 어두워지고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죄와 가까워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육신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실은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빛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가깝게 우리가 난로도요 멀리가면 갈수록 난로의 그 온도와 그 빛을 빛이나 이런 것을 못 느끼듯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가까이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하시고

그러면서 이 죄와 멀어지고 어둠과 멀어지고 불법과 멀어지고 또는 이 세상의 욕망과 이런 것과 멀어지고 점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소망이 더욱더 늘어나고

그런 엄청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죽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진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조금만 새로운 것만 보더라도 아주 신기해서 또는 다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거 하나 갖고 싶어 그러는데

천국은 그거에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있자나요. 그래서 실제로 좋은 것이 뭔지 충분히 설명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이 천국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 안에 또 내가 보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이거는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천국이 아니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천국 안에 이제 거할 수 있는 그런 성입니다. 성

우리가 이스라엘 땅이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있자나요

그래서 여기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성의 크기가 얼마나냐

성의 크기가 일만이천 스타디움이다

그러니깐 가로, 세로, 높이가 일만이천 스타디움이라 하는 그런 크기의 새 예루살렘이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

데

실은 저 천성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

어떤 사람은 이 천성 다시 말해서 이 새 예루살렘 이 성이 얼마나 크냐 아마 저 달만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충 이렇게 크기를 재보면은 가로가 일만이천 스다디온이면은 한 2천킬로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2천킬로는 우리가 남북한 전부 이렇게 쪽 이렇게 가장 긴 곳으로 이렇게 재면은 한 천킬로 정도됩니다.

그러니깐 그 2배 정도되죠.

그거 2배가 이렇게 그거 2배 2배 정도고 가로 세로 높이까지 그렇게 되면 그 체적이 달만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성이라면 그 정도의 성이라면 우리가 천국은요

신령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교통수단이 따로 있다든가 그런 게 없자나요.

그러니깐 어떤 벌집이 칭칭이 되어있지만은 벌이 날아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아마 거기에 내 방도 여러분의 방도 각자 아마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체적 그렇게 한 곳에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아마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요 가보면은 이제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이 신령한 몸이 뭐 집이 있으면 어떨고 집이 없으면 어떨것어요. 그러죠?

무슨 추위를 타겠습니까 더위를 타겠습니까

무슨 뭐 철 따라서 뭐 이렇게 패션 그 입을 옷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하겠습니까 글쎄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는 이 세상에서 있었던 어떤 눈물이라든지 그러죠? 사망이라든지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우리가 다시 말해서 애벌레로 살던 그런 삶의 고통은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간다는 하는 것입니다.

왜 천국이 좋은 것이냐

그것은 이 천국은 지금 현재는 하나님도 희미하게 보이고 우리가 그냥 성경을 통해서 유추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은

이제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국은 왜 좋으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죠. 글자나요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처소이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거기가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했는데

첫째 하늘은 우리 이 파란 하늘 그걸 첫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저 우주의 하늘들 그니깐 물질계죠 그 저 우주의 하늘을 둘째 하늘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이 셋째 하늘은 신령한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셋째하늘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도 실은 실제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요 물질계지만 물질계지만 이 다른 물질계죠.

우리가요 빛도 하나의 그 입자라고 그러죠. 글쎄? 하나의 물질인데 이게 인제 잡히지도 못 이게 만지지도 못하고 한 어떤 그런 것처럼

이 천국도 실은 실제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를 셋째 하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니깐 이 그 천국이 있는 위치가 어디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저 북쪽 그 어느 곳에 그 엄청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세계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어떤 천국이 있다 라고 그 암시되는 그런 성경 말씀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갖고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 계시는 곳 그리고 예수님이 계는 곳이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Y oí una gran voz del cielo que decía: He aquí el tabernáculo de Dios con los hombres, y él morará con ellos; y ellos serán su pueblo, y Dios mismo estará con ellos como su Dios.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가 지금 미미하게 희미하게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서 그것을 알고 보지만 이게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그럼 신령한 눈으로 또는 어떤 신령한 세계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우리가 육신까지 변화되면 하나님이 늘 함께 임재하시고 임마누엘이죠

함께 하심을 다 알고 정말 큰 기쁨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은 두번째로 있자나요

천국 가면은 완전히 나는 그냥 없냐?

아닙니다. 죽음 건너가서도요 죽음 건너가서도 이제 세상의 그것들이 다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니깐 지금 현재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저하고 같이 교회학교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든 기억들이 천국에서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지옥에 간 나사로 아 저 부자도 있자나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좀 내 형제들이 살고 있는 저기에 보내가지고 좀 나있는 곳에 오지 못하도록 저 천국에 가도록 그러게 해달라고 하는 그 부자의 말을 보더라도

그 천국에 가면은 이 세상의 일들을 전부 잊어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도 다 죽음 건너편에 가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니깐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좋은 추억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들은 나중에 어떤 영롱하게 비치는 어떤 보석으로 지은 집

그리고 금으로 지은 집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영롱하게 비칠 것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전부 불로서 공력을 나타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합당치 않게 살았던 것은 모두 불타없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면서 사는 것, 그리고 많은 영혼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그런 모든 것들은 영롱하게 비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었던 모든 기억들은 함께 영원히 잊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죄를 지고 이 세상에서 잘못 살고 이 세상에서 했었던 어두운 것들은 주님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전부 불타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 죄 지었던 것이 천국에서 계속 기억이 나면은요 천국이 지옥입니다

영원토록 이걸요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어떤 기억도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생각이 나면 계속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

로 살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은 불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딱 만났을 때는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십니까?

기억도 나지 않는 것처럼 그럴죠? 우리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었던 어떤 인정, 인정도 거기서는 사라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요 지금은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누가 나를 더 위해서 기도했는지 누가 나를 위해서 더 뭐 했는지 더 모릅니다.

희미하지만 거기에 가면은요.

어떤 형제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어떤 형제가 나를 위해서 뭐 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온전해집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지금 뭐 사람 이름도 잊어먹고 뭐 그러자나요

거기서는요 하나님의 아이큐가 무한대자나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아이큐가 좋으냐

별들의 수효를 다 개수하시고 그 별들을 다 저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 별이 십의 25승 개라고 그랬죠

그 모든 별들의 이름을 붙여놓고 그걸 다 이름대로 부르실 정도의 아이큐, 그 아이큐와 똑같이 우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거든요

그니깐 우리 지식도 온전해집니다.

그러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무한 존재가 되는지 진짜 우리가 대단한 분들입니다.

정말 존귀한 분들이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Ahora vemos por espejo, oscuramente; mas entonces veremos cara a cara. Ahora conozco en parte; pero entonces conoceré como fui conocido.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아는 것이 완전하게 알자나요 온전하게 알자나요

실은 나는 나도 나를 온전하게 몰라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근데 어떻게 되요 예수님은 벌써 아셨죠? 아시고 니가 닭 2번을 이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는 것처럼 주께서 온전히 아시는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나를 온전히 알 뿐만 아니라 하여튼 모든 것에 대해서 온전히 압니다.

그 때 가면은요 공부 안 해도 있자나요 어떤 예술계, 과학계, 문학계 뭐 이 세상의 대한 뭐 지식은 전부 완전히 찌꺼처럼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의 부요함이 그냥 하나님이 전부 나한테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그래야만 진짜 하나님과 함 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요 어떤 애벌레하고 교제가 안되자나요. 그렇지 않아요?

벌레하고 교제하고 안되자나요. 이 실은 애벌레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나중
에 지금은 영혼만 구원했지만 이 육신같이 완전히 구원해서 그러지 않아요?
그게 온전한 구원이죠

그러게 돼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바로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11절 보겠습니다.

시편 16장 11절입니다 시편 16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
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Me mostrarás la senda de la vida; En tu presencia hay plenitud de
gozo; Delicias a tu diestra para siempre.

이 세상에는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러지 않아요?

웃음 끝에도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괴로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그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바로 거기가 천국입니다.

자 시편 43편입니다. 시편 43편 4절입니다. 시편 43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여 나의 하나님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Entraré al altar de Dios, Al Dios de mi alegría y de mi gozo; Y te alabaré con arpa, oh Dios, Dios mío.

진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과 찬양을 할 때에는 우리 마음 속에서도 아주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좋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물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발표한 것을 보면은 이 물을 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주를 내리고 욕을 하게 그러게 되면은 금방 썩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물에 대해서 찬송을 들려주고 그리고 좋은 얘기를 하고 뭐 밥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안 썩고 글쎄? 실험 있나나요.

무라든가 이런 것도 헤비메탈 같은 거 완전히 그런 막 찢어지고 찢어지는 음악 그런 거 들려주고 뭐하고 그러면 무들이 다 갈라지고 뭐하고 그런다고 그러죠

이게 이 물의 특성에 그게 있습니다.

언제 한번 물에 대해서 한번 물과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도요 좋은 얘기만 계속 듣고 살면 그 사람은 평강이 있고 병도 안 생기고 그러는데 자꾸 스트레스 받는 그 얘기만 듣고 살면은요 이게 병이 생기

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몸도 몇 퍼센트가 물이죠?

75퍼센트.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70프로 이상이 물이기 때문에 이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다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렇죠 피는 90퍼센트 이상이 물이잖아요

그니깐 이 사람한테 칭찬을 하고 이렇게 사람한테 좋은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지를 얘기하는건데 실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극락세계입니다.

극락의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지금도 우리가 맨날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하고 살지만은 그건 자기의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늘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하고 이런 것은 그런데 천국에 가면 더 좋은 곡조로 지금은 음치라 잘 못하지만은 거기가면은 모든 것이 완벽해지니깐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곡조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 세계가 될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즐거움 또는 극락, 아주 기쁨의 극치 기쁨이죠.

희락. 기쁨의 극치의 세계. 거기가 바로 어딴니까?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이 세상은 어떻게 쉬지 못하죠 글쎄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제7일째 쉬셨다고 그랬어요. 안식하셨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이 깨지고 그게 지금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깐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구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그 제대로 안식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거기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죠.

요한계시록 14장 보시죠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Oí una voz que desde el cielo me decía: Escribe: Bienaventurados de aquí en adelante los muertos que mueren en el Señor. Sí, dice el Espíritu, descansarán de sus trabajos, porque sus obras con ellos siguen.

자 주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는 이 세상을 건너간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건너가서 천국에 들어간 그 사람은 진짜 참 안식이 있다

저의 수고를 저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영원한 안식 바로 천국은 바로 영원히 안식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는요 천국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보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보시다 23절

같이 읽읍시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La ciudad no tiene necesidad de sol ni de luna que brillen en ella; porque la gloria de Dios la ilumina, y el Cordero es su lumbrera.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자신이 빛이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깐 어떤 인공적인 빛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다른 피조물로부터의 빛도 필요 없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 자신에서 나오는 그 빛이 충만한 세계.

그러니깐 천국은 완전히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고 천국은 뭐가없냐. 밤이 없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No habrá allí más noche; y no tienen necesidad de luz de lámpara, ni de luz del sol, porque Dios el Señor los iluminará; y reinarán por los siglos de los siglos.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일을 하다보면은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쉬어줘야 되도록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육신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참을 안자고 한달 내내 일을 한다던가 그러면 이 육신이 망가져버려요. 그러

지 않아요?

그래서 병에 걸리거나 못살죠

이게 자꾸 이렇게 쉬어야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육신을 창조했는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으면 이거 쉼도 필요없어요.

하나님은 뭐 밤이 없으시자나요 지금도요 밤이 됐든 낮이 됐든 우리를 눈동자처럼 그렇게 지키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처럼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밤이 실제로 없는 세계입니다. 밤이 실제로 없는 세계.

그리고 거기에는 죄가 없는 세계입니다.

지금요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를 입히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도 하고 담도 쌓고 문도 잠그고 띠디디디 뭐 그 암호도 하고 천국가면은 뭐가 없다 그랬죠? 문이 없다 그랬자나요.

무슨 해를 받는다든가 죄가 있다든가 속된 것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보겠습니다. 2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No entrará en ella ninguna cosa inmunda, o que hace abominación y mentira, sino solamente los que están inscritos en el libro de la vida del Cordero.

자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 거짓말 하는 것 이런 것은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고 나면은 우리도 이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처럼 이제 죄를 알지도 못한 그러한 상태로 우리의 몸도 변합니다. 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속된 것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글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또 그곳에는 어떻게 있냐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주옥 보면은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3절 보세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Y no habrá más maldición; y el trono de Dios y del Cordero estará en ella, y sus siervos le servirán,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y verán su rostro, y su nombre estará en sus frentes.

이 말씀 속에서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어떤 때는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때는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처럼 형제자매를 실제로 섬기는 것처럼

그 때는 얼굴을 보면서 진짜 어떤 그냥 추상적인 느낌이 전혀 없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거기는 영원한 세계이며 영생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영생을 누리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은 바로 복의 근원이죠

진짜 만복의 근원되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이 세상의 모든 복이 그 곳

에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게 뭡까요?

내 마음 속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돈 가지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는거죠

천국에서 누릴거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만족이나 행복을 전혀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공부한 어떤 학문이나 지식을 가지고도 온전히 하나님처럼 알 수도 없고 맨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 투성이고

또는 뭐 과학을 아무리 공부해도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떤 나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천국에 보낼 수 없고 그러고 내가 뭐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의학의 그 공부를 마쳤다할지라도 한 사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어떤 한 사람도 영생을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서 내가 소망을 두는 것은 소용이 없다

이게 뭐냐 이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 진짜 참 값진 것, 진짜 영원한 것, 진짜 온전한 것, 그것이 어디냐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 자신 밖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요 나는 너무나 하찮고 보잘 것 없고

맨 죄덩어리고, 어찌할꼬 그 회개했을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불쌍히 여겨서 천국갈 수 있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회개해서 구원받음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천국을 받은 우리입니다.

우리가요 시간만 지나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않아요?

대학교 합격증을 딱 받아놓으면요 이제 시간만 지나면 그 대학에 다니는 거 아닙니까? 글쎄?

예를 들어서 어떤 무슨 무슨 타워 해가지고 굉장한 프리미엄 아파트에 당첨이 되가지고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다 아파트가 다 완성이 되면 거기에는 뭐 들어가는 것은 받아 놓 밥상이자나요. 맞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짧은 이 인생을 지나고 나면 천국 들어가는 건 이걸 받아 놓 밥상입니다.

이런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되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많이 배운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궁극적으로 사는 하나의 목적은 너만 가면 되겠냐?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만 피 흘려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피 흘려 죽었는데 왜 그 예수님의 그 피를 제한하고 예수님

의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나

니가 잘못 사니깐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러니 잘 살아라 다른 사람한테 그 흠 잡히지 말고 그러니깐 지금 의롭게 두렵 다른 천국에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구별되서 그 거룩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 구별되서 제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니가 갖고 있는 이 천국 니 마음 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천국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줘라 그거요

그리고 그들도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궁극적인 목적은 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영혼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전부다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천국갈 수 있는 백성이 다 차면 이방인의 수, 총만한 수가 다 차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 시점이 바로 거기에요.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깐 천국에 들어갈 이미 이방인의 총만한 수는 비밀이죠.

하나님이 정해진 순재에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러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그 영광이 그 궁창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출 것입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고 옆에 할 수 있고 그건 니들이 니들이 천국은 침노하

는 것이다.

니들이 각자 각자 알아서 해라 그거요. 알아서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이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그러니깐 세상과 가까워지고 죄와 가까워지고

그리고 육신에 가까워지고 맨날 거기에 허덕이다가 나중에 주님이 이제 공중에 재림했을 때 확 불질러 버리면은 아무것도 안남어 다 타버렸어

자기는 구원을 얻되 뭐예요?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니라

그렇게 해서는 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요. 어린아이들이지만은 그래도 그 영혼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서든지 일깨우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 마음 속에 이 성경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요 어릴 때 이걸 마음 속에 집어넣는 것이 바로 우리 선생님들의 임무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펄전 같은 사람은요 벌써 이십대에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십대 되기 전에 벌써 성경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벌써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한 두 번 봤겠습니까?

성경을 엄청 본 겁니다. 벌써

그래서 성경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말씀듣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벗어나서

좀더 하나님 자녀답게 그 좀더 깊이있게 우리가 살아 살아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 교회학교를 나와서 디엘무디 같은 그런
분들이 꼭 나와야됩니다.

우선 디엘무디는요 책에 읽어보니깐 백만명을 옳은대로 인도하신 그런 분이
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백만명. 엄청나죠. 뭐 그것이 얼마나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겠지만은

우리가요 백만명은 그만두더라도 우선 아이들이 우선 몇 천명이라도 아니
몇 만명이라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나와야 디엘무디 같
은 사람도 근제 이후에 또 나올 수 있겠죠? 글쎄?

그런다면은 우리 아이들을 나약하게 절대 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세상은 어짜피 사라집니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 흔적은 지나감이니라.

지나가는 이 세상에 붙잡혀 아이들 살지 말고 진짜 참된 가치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가치관을 심어주고 나의 인생관을 심어주고 인생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전부 잠깐 지나가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진짜 인생은 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 진짜 나의 사람으로서의 인생이 있으니깐 그것에서 진짜 살 수
있는 이 준비가 바로 여기서 하는 것이다.

우리 같이 하자. 선생님도 그렇게 살테니깐 너희들도 그렇게 살자.

선생님도 그렇게 살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살고

우리가요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그 훌륭한 감독은 훈련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선수들하고 같이 뛰니다. 맞죠? 자기는 안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뛰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살테니깐 너희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해서 주님 앞에 훌륭한 일꾼을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저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이 아주 그냥 간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르치면서 내 자신도 내 자신이 뭐 천국을 아주 그냥 추상적으로 희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래서요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것도 여러 번 여러 번 읽어보시구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 개념이 마음 속에 확 잡혀야 할 겁니다.

실은 이 천국에 대해서 대여섯시간 정도로 짝 얘기를 해야 제 직성이 풀리겠는데

그야 뭐 잠깐 이거 1시간 남짓 얘기해 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요 하여튼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아마 이 고생은 결코 조금도 헛되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기요.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더 힘내서 더 열심히 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충성되이 여겨 부족한 저희를 교사의 직분을 맡기시고 늘 부족한 만큼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아이들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로지 사는 그 힘은 오로지 우리 주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주님의 나의 힘이고 주님은 나의 방패시고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 살지만 나의 마음은 주님에게 가 있는 저 천국에 가 있는 우리되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